

最近 朝鮮 研究의 業績과 그 再出發

[四] 朝鮮學은 어떻게 樹立할것인가

申南澈

(3)

中國에 있어서 民國 八年 以來의 學生團 乃至 民族運動을 支配한 思想의 歷史를 살피어보면 實로 被難多□해야 그 先覺者의 一人으로 하여금 「主義를 잊고 오직 問題를 把握하여라」고 부르짖게 하였다.

曰 民主主義, 曰 國家主義, 曰 人道主義, 曰 페비아니즘, 曰 맑스主義, 曰 文化主義. 그와 같이 混亂한 狀態에서 그들의 思想을 집어내는 것은 單只 困難할뿐 아니라, 犧牲히 錯誤에 빠질 危險까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先覺者들은(例컨대 □玄同, 蔡元培, 胡□ 等) 그러한 被難多□한 思想混亂에 있어 서도 一定한 指針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中國의 一切의 傳統-儒敎도 專制政治도 英雄崇拜의 思想도-에對한 猶□없는 批判으로부터 出發하여 保守的인 國粹主義는 「國賊」이라고까지 하였 으며, □極적으로 「때모크라시[데모크라시]」와 「科學」과 「모랄리티」로써 새 中華民國을 □□하라고 하였다. 中國으로 하여금 洋人의 소매 밑에서 解放하여 新□年 中國을 建設하자면 中國古來의 「忠孝節義」라든가 「□常名救」라든가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라는 頑固하고 非現代的 傳統으로서는 半植民地로서 中國의 自主的 解放을 期하기 어려우니 무엇보다도 먼저 中國民族으로 하여금 奴隸的 生活를 甘受하게하는 所謂 □□須知的 思想을 打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리 하여 西洋的 乃至 資本主義的 個人思想으로써 新 中國의 指導□理를 삼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것이 卽 □國과 自我□□의 究□의 意義라고 하였다. 古來의 運命的인 「天命論」이라든가 「安分守己」라든가 「元首庶民」이라든 가의 傳統的 思想을 그러한 立脚地에서 새로 回顧하며 吟味하여 中國으로 하여금 完全한 近代 國家的 □□을

保有하기를 努力하였든것이다. 胡適, 蔡元培, 陳獨秀 等の 先覺者에게 □□반은 □有名한 五四 運動의 思想的 背景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民主主義的 民族運動의 內部를 도으르고 잇는 思想的 背景도 實로 이들 中國 國學運動에 그 直接間接의 影響을 받고 잇는 것이 었다.

民國六年 十一月米國에서 起革된 胡適의 「文學 改良 舜議」라든지(中國의 「文學革命」은 이것을 中心으로 하여 論議되엿다.) 「中國 哲學 史大綱」과 蔡元培의 「中國 倫理史」같은 著述은 모다 이 中國의 民主主義的 國學運動에 큰 寄與를 한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陳獨秀의 儒敎 批判에 對한 諸論文 가운데에서 胡氏의 文學革命에 잇어 서의 「文學 改良 舜議」에 匹敵할만한 民國 五年 十二月 「新青年」에 發表한 「孔丘의 道와 現代生活」은 現代 中國의 新進學徒들에게 多大한 感激을 일으키 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中國에 잇어 서의 新人들의 新 中國 建設을 目標로한 黎明運動은 形式的으로 또는 觀念的으로 □□과 같이 中國 四億萬 民衆의 頭腦속에 깊이 뿌리박은 傳統의인 精神生活을 속속들이 파헤 집어내고 다 들어내서 封建政治로부터 民主政治에 半 植民地的 隸屬으로부터 完全한 解放에 格式的 倫理로부터 民主主義的 倫理의 獨立에... 等等으로 怒□와 같이 휩쓸려 내려 갔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中國의 歷史的 社會的 過程의 必然의 □□으로서 中國에 잇어 서의 資本主義의 急激한 發展과 같이 그 運動도 激烈하게 討論되엿섯다. 中國의 「國學運動」은 大□에 잇어서, 이와 같은 內容을 內包하고 잇는 것이 었다. 勿論 지금에 잇어서는 그 運動은 質的으로 變換하여 더 새로운 見地에서 中國의 社會的 歷史的 研究가 進行되고잇다. 「中國 社會史論爭」같은 것은 너무나 有名한 事實이다. 中國의 所謂 國學運動은 처음부터 그들의 半植民地적 社會環境 때문에 進步的이엿다. 그러나 그것은 반듯이 오고야말 다음의 階段으로 變換하고말엿다.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中國의 國學運動을 再興云云함은 썩스러운 일이라.

(4)

以上에서 日本과 中國에 잇어 서의 「國學運動」에 對하여 若干의 考察을 □하엿다. 日本에 잇어 서는 復古的 國粹主義的 色彩가 거의 그것의 全部이 엿으나 中國에 잇어 서는 進步的 改革的인것이 그 性格이엿다. 그러나 日本에 잇어 서는 그것은 完全히 西洋學問에 잇어 서의 研究方法에 解消되고말 엿고, 그 殘滓가 反動的 思想과 結合하여 잇을 뿐이라는 것은 伊東多三郎氏의 「國學의 史的 考察」이 指摘하고 잇는 바이며, 中國의 그것은 質的 變換을 完成하며 잇다는 것 다시 말하면 當初에 잇어 서는 國學運動으로서 光輝 잇는 改革的 進步的 影響을 中國最近史上에 많이 끼치고 잇는 것이나, 지금

에 와서는 普遍的 科學 方法論으로서의 社會科學的 方法에 依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면 足할가한다.

(5)

그러면 「朝鮮學」을 지금에 와서 問題삼으며 그 樹立이 可能하다고 하면 그 可能하다는것의 意義는 무엇인가. 이것이 吾人의 가장 關心할바 問題의 核心이다.

나는 이 「朝鮮學 樹立」의 問題를 오직 (一)一個의 問題로써 提出하는것이 아니다. 問題는 問題 그 自身으로서는 存立할수가 없다. 問題도 社會的 連關에서만 그 問題의 可能性이 發見된다. (二)朝鮮學은 또한 오직 學的 研究 그것에만 局限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한 개의 「프로스펙트 [prospect]」(眺望)을 提供하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한 개의 眺望을 提出하는것이 하면 그것은 반듯이 社會的 諸運行과 密接하게 關係하지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오직 研究 그것에만 그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實踐的 方面을 自己의 他者로서 內包하지않으면 아니 된다. (三)朝鮮學의 樹立에 있어서는 從來의 說話的 史觀으로부터 脫脚하지않으면 아니 된다. 文獻的 訓話的 研究도 考證的 □□學的 (胡適)研究도 必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必要한것은 朝鮮의 「問題史的 研究」이다.

이 三者가 一定한 目標아래 統一된다면 朝鮮學은 빛나는 새 出發을 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可能하리라. 그리 하여 朝鮮의 社會的 歷史的 進行과 符合되는곳에서만 그 意義를 發見할것이다. 나는 朝鮮學은 如斯히 하여 樹立되어서만 그 意義를 發見할수있다고 생각한다. 朝鮮學의 樹立과 그 過程은 日本의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中國의 그것과 같은 것이어야만 비로소 그 樹立의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X X X

나는 다음에 最近 朝鮮 研究의 諸業績에 對하여 不充分하나마 紹介하여서 써 朝鮮學 樹立에 關한 若干의 考察을 하라고한다.